

“어촌 정착 지름길, 귀어학교에서 배워요”

‘제5기 전남 귀어학교’ 수료식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19명 예비 귀어인 배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귀어로 인성 2막에 도전한 교육생 19명을 대상으로 ‘제5기 전남 귀어학교’ 수료식을 귀어학교가 있는 강진지원에서 개최했다. (사진)



<강진귀어학교 제5기>

지난 10월 5일부터 5주간 진행된 제5기 귀어학교는 어촌 정착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촌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현장견학(3주) 및 선도어가 현장실습(1주)을 거쳐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1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1차 개편안에 맞춰 19명의 수료생과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전남 귀어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5주간의 교육을 되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공로상 수여, 교육 참여 소감발표의 시간이 가졌다. 수료생들은 남자 16명, 여자가 3명이며 30대 5명, 40대 6

명, 50대 6명, 60대 2명 등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교육생들은 “전남 귀어학교 교육과정 중 먼저 귀어를 하신 선배님들의 어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귀어를 미리 체험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겼으며, 이곳에서 얻은 소중한 정보와 체험 등은 어촌에 정착하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전남 귀어학교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세 번째로 지정받은 교육장으로, 2020년 6월 온라인 개교를 시작으로 이번 5기 교육과정까지 모두 74명

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해 수료생 36명을 대상으로 한 정착현황 조사 결과 25명이 어촌에서 현재 거주 중이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어촌과 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수료생들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전남 어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유가공협회, 고려인마을·돌봄 아동에 우유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한국유가공협회와 함께 “Thank유 1004 빨간상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음 든든 우유”를 광주전남지역내 돌봄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평균우유 532박스(1만 2768개·700만원 상당)다. 우유는 고려인마을에 200박스(4800개), 광주전남지역 내 아동·

청소년 희망복지 결연가구에 332박스(7968개)가 전달될 예정이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아이들에게 몸도 튼튼 마음도 든든한 우유를 전달 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지역 기관 9곳과 연계해 창업 지원 나선다

창업컨설팅 합동지원소 설치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황석승)이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총 9개 기관과 지역 창업 협력을 위한 조선대학교 창업컨설팅 합동지원소 협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조선대 제공>

9일 솔마루 3층 창업생산업육관B에서 진행된 협판식은 조선대학교와 광주지역 8개 기관이 교내의 창업 동아리, 예비 및 기창업자, 기술창업자, 일반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합동지원소 개소를 함께 축하하고 취지 및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대학·지역 연합형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 협력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맺은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이 함께 참여해 총 9개 기관이 창업컨설팅 합동지원소 기관으로 포함됐다.

창업컨설팅 합동지원소는 조선대를 포함한 총 9개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원 정책과 기능을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공유해 지역발전과 창업활성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기관마다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요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22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과 8건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성공창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22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과 8건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성공창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병곤·박연숙 부부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농협 전남본부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象)’ 수상자로 조병곤·박연숙(강진완도축·사진) 부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조병곤씨 부부는 1987년 강진군 성전면에서 축산업을 시작해 현재 한우 250여마리 사육과 조사료 재배로 자립경영을 달성한 복합 영농인이다.

강진군 명품한우연구회 회장, 성전면 한우협회 사무국장 활동 등으로 강진한우상품성 증대·사육능력의 소득향상 등 지역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에게 주는 상이다. 지역농협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안녕 우리말 2021 55 UHD 숨터	00 생생정보 스페셜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똑똑구조대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20 영상앨범 산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12 MBC 뉴스 20 오프 더 레코드 스페셜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35 월드컵(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나의 살던 고향은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오소매 붉은 굿동 농독회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3]	00 마법소년 디디 2 15 출동! 유추구조대 2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캐(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엘리가 간다(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여순1019특별기획 기억을 기억하라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재)	0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15 몬스터 탐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아머드 사우루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20 아머드 사우루스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구두	05 생방송 영남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달리와 감자탕(재)	00 극한데뷔 야생돌	00 워맨스가 필요해
[10]	00 다크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오늘부터 무해하게	50 광주MBC 다크플렉스 건축의 시간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2]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5 영상앨범 산(재) 45 통합뉴스룸 ET(재)	20 오소매 붉은 굿동 인물열전 35 방과 후 설빙 프리콜 오은영의 등교 전 망설임 스페셜	00 SBS D포럼 2021 특집다큐 나도, 청년입니다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울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로보가 풀리	12:10 EBS 부모	19:05 미스터 마구
07:15 두디다공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맹 유치원	15:25 클래스 e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유럽 -헝가리 시골 기행>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페파 피그	<우리 이렇게 살아요 4부 내 마음의 풍경>
09:00 시몽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1:50 누구세탁소
09:15 봉구야 말해줘3	16:30 딩동맹 유치원(재)	22:35 다크 오늘
09:30 통통가족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음 10월 7일 癸亥)

☎ 010-9790-8237

<p>36년생 기회는 나는 새처럼 아무 곳에서나 내려앉지 않는 법이다. 48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60년생 무식도 갈면 바늘이 되는 법이다. 72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락을 잡으리라. 84년생 형세가 석연치 않다. 96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행운의 숫자 : 09, 78</p>	<p>42년생 목전의 사세를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54년생 성의를 다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66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판세이다. 78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90년생 상대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 하리라. 02년생 핵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겉핥다가 하루가 다 간다. 행운의 숫자 : 19, 77</p>
<p>37년생 일부만 본다면 착각할 수다. 49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61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73년생 성구의 향방을 좌우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85년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능률적임을 알라. 97년생 다른 결과도 도출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6, 75</p>	<p>43년생 사냥누각에 불굴한 것이다. 55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67년생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속 시원히 알게 된다. 79년생 끈질기게 할 일이 생기지만 잠시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91년생 최적이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03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34, 98</p>
<p>38년생 넓은 마당으로 나아가리라. 5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 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62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74년생 상대의 숨은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86년생 거처적거리기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98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3, 86</p>	<p>32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44년생 믿고 의지하여 왔던 바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는 운로이다. 56년생 관계를 떠나서 냉정히 돌이켜 볼 일이다. 68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80년생 선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92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83</p>
<p>39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51년생 행하다 보면 결말이 나게 되어 있느니라. 63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75년생 앞맹이는 잃고 걸레기만 남아 있는 양태이다. 87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99년생 선악과 정사를 가리지 않는다 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행운의 숫자 : 45, 89</p>	<p>33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45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 된다. 57년생 판국을 좌우할만한 격량이 요동친다. 69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81년생 여러 사람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영광이 따르다. 93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행운의 숫자 : 32, 71</p>
<p>40년생 물줄기가 세차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물레방아는 돌수가 없다. 52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64년생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상이니라. 76년생 현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니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 88년생 살피고 물어 보는 것이 낫다. 00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2, 97</p>	<p>34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46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58년생 강풍이 불어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70년생 몇 갑절의 노력을 경주해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82년생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94년생 끝나는 마당에 털어 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6, 80</p>
<p>41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수박에 없다. 53년생 합리성이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65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긴요하다. 77년생 호사다마요, 새옹지마에 비유 할 만 하므로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요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89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01년생 허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1, 58</p>	<p>35년생 주관이 치우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7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59년생 조용히 추진하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71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83년생 깊이 있게 관찰하여야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5년생 요령이 있어야만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17, 67</p>